

특허기술상품 해외 전용 판로 열리다

한국발명진흥회(회장 이구택)는 특허상품 전문 e-마켓플레이스인 '바이인벤션(www.buyinvention.com)'에서 판매하고 있는 특허상품을 6월부터 B2B 통합 플랫폼인 'e-AMP'를 통해 미국, 일본 등 해외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전용 판로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전자거래협회(회장 서정숙)가 우수 특허기술상품에 대한 거래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체결에 의한 것으로, 현재 바이인벤션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허상품의 기술성,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해당 상품정보를 영

문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한국전자거래협회에 추천, B2B 통합 플랫폼과 연계된 국내 무역 포털 사이트를 통해 해외 무역업체 및 바이어 매칭 등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전자거래협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양기관 보유자원, 정보 및 기술 등의 상호이용과 '바이인벤션' 및 'e-AMP' 간 유기적 연결체계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공동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협정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유망 특허상품을 해외에 전문

적으로 프로모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기술의 적극적인 활용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발명진흥회 민경탁 상근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특허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미비해 우수한 특허기술과 상품이 사장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한국전자거래협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특허상품의 해외 판로 개척과 함께 국내 특허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미래 바꾸는 '2005 대한민국 특허기술이전 박람회'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2005 대한민국 특허기술 이전 박람회'가 특허청(청장 김종갑) 주최, 한국발명진흥회(회장 이구택) 주관으로, 지난 5월 10일부터 4일간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열렸다.

올해로 3번째 열린 이번 '2005 대한민국 특허기술 이전박람회'는 80여개의 기관들이 총 2백73개의 특허기술로 참가하였으며, '이전 특허관'에서는 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이 보유한 1백73개의 특허기술을 전시하고, '특허기술 장터관'에서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특허기술 상설 장터에 전시된 국유특허 등 1백개의 우수 특허기술들이 선보여 다양한 특허 기술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따라 '웰빙, 안전, 친환경' 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특허기술들이 선보여 우리 특허기술의 현주소와 청사진을 함께 볼 수 있었다. 이번에 출품된 특허기술 중에는 항암 효과를



지난 5월 10일부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2005 대한민국 특허기술 이전 박람회'.

갖춘 기능성 음료, 면 가운데 구멍이 있어 독특한 질감과 맛을 내는 중공 국수와 같은 독특한 건강 먹거리를 비롯하여, 자동차 급발진 방지 장치 등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웰빙' 특허 기술들이 대거 선보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밖에도 아로마 테라피 효과를 가미한 향수 분사 알람시계, 캔 입구를 변형시켜 내용물을 완전히 마실 수 있는 캔, 공기 주머니가 있어 손에 땀이 차지 않는 고무장갑, 울 통불통한 노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텐트와 같은 생활 밀착형 기술도 출품되었다. '2005 대한민국 특허기술 이전 박람회'의 꽃은 바로 첨단 특허기술로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기업들의 꾸준한 연구와 기술개발 노력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배관 안에서 작업이 가능한 소형 이동 로봇, 하이브리드카에 유용하게 사용될 양성자 전도성 고분자막을 이용한 청정 연료전지, 핸드레일 살균 장치가 부착된 에스컬레이터 등 미래 산업을 주도할 첨단 기술들이 기술이전을 통한 상용화를 준비했다. 한편 박람회 기간 동안 전시 이외에도 풍성한 부대행사가 열렸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되는 '우수발명 시작품(試作品)관'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원으로 기술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제품들을 직접 볼 수 있었다. 또한 특허기술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및 기술 보유자들을 위해, 누구나 자신의 특허기술을 알릴 수 있는 '특허 마당'과 특허기술 거래와 평가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특허기술 지원관'이 개설되어 특허기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어 모든 발명가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었다.

특허청, 6시그마 도입으로 '특허행정 매뉴얼화' 추진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삼성경제연구소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업무 프로세스 혁신 기법인 6시그마를 도입하여 특허행정의 매뉴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시그마는 '경영의 모든 부문에서 발생하는 결함의 원인을 분석하여 제거하는 혁신 활동'으로서, 특허청 내 각 분야에서 선발된 태스크포스팀(T/F팀)에 대해 6시그마 교육이 진행되었고, 교육 후 6시그마의

최신 방법론을 활용하여 출원·심사 분야를 6시그마 수준으로 재설계한 후 이를 매뉴얼화 한다.

주요 매뉴얼화 대상은 정부 혁신 로드맵 상의 혁신추진 단계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발굴된 특허행정 혁신 사례들이며, 매뉴얼 없이 수행해 온 업무나 이미 매뉴얼화 되었으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발굴하여 함께 매뉴얼화 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단계적인 매뉴얼화를 추진

하기 위하여 우선 사업대상으로 매뉴얼화 시 품질 제고 효과가 큰 출원·심사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등록, 심판, 정책 분야 등의 업무까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2006년에는 특허행정 전반에 걸쳐 매뉴얼을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허행정 표준화 원년' 선언을 통하여 출원·심사 업무를 표준화·매뉴얼화 하였음을 선언하고, 매뉴얼화 작업의 확대 추진 의지를 다짐 예정이다.

GS 그룹의 새로운 로고 분쟁, 특허청 손에!



LG 그룹에서 분가된 GS 그룹이 출범을 앞두고 내놓은 새 CI 로고(왼쪽)가 중소기업인 삼이실업의 로고(오른쪽)와 유사해 논란을 빚고 있다.

GS 그룹의 새로운 로고 상표 출원에 대해서 비슷한 로고를 사용 중이던 삼이실업(회장 김석희)이 특허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삼이실업은 자사 로고가 GS 그룹 로고와 유사하다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김석희 회장은 '지난 주 특허청에 GS 로고의 출원 등록을 막기 위한 각종 정보자료를 제출했다'며 '12년간 써온 회사 로고에 대한 주지성을 입증할 자료도 계속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GS 그룹은 지난 11월 자사의 로고를 상표출원 했고 특허청은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92년 스페인 로열사에 의뢰해 도안한 로고에 대해 스페인 정부의 공증서류도 갖췄다'며 '미처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10여년간 써온 로고를 그냥 뺏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삼이실업은 GS 그룹의 로고가 알려진 지난 2월해야 상표 출원을 냈다. 김 회장은 'GS 로고를 알게 된 후 쓰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공식발표 45일 전에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GS 측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대적인 광고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아무리 중소기업이라도 먼저 출원했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상도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권은 출원이 우선이지만 출원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명한 상표에 대해서는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저명성도 불특정 다수가 알아야 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삼이실업이 이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삼이실업과 GS 그룹이 사용한 로고 모양은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라틴어 문양 '프랑켄슈타인 서체' 중 'S'를 응용한 디자인이다.

미국, 한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감시 등급 낮춰

미국이 한국에 대해 지적재산권 감시 등급을 한 단계 낮췄다. 지난 5월 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90개국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에 대한 연례 점검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등급을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하향조정했다고 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협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우선협상대상국으로는 우크라이나 1개국이 지정됐으며 우선감시 대상국으로는 중국, 아르헨티나 등 14개국이 포함됐다.

정병화 통상교섭본부 북미통상과장은 '지난해 1월 한국을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한 후 지난해 5월 연례 점검 시에도 이를 유지했다'며 '하지만 그 후 우리 정부가 취한 지적재산권 제도개선 조치들 인정해 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지재권 감시 등급이 감시대상국으로 떨어진 것은 그만큼 미국측 감시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라며 '양국간 통상관계나 자유무역협정 협상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충남중기종합지원센터 지역 첫 지식재산센터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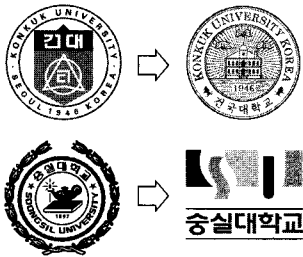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장귀남)는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특허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지정됐다.

이번 지식재산센터 지정으로 충남중기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지원하던 지적권 관련 상담 및 특허출원 지원뿐만 아니라 '특허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특허 정보 검색, 특허 기술 거래, 특허·실용신안 제품의 상설전시를 통한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 등이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충남중기종합지원센터는 '산업재산권 교육, 지적권 관련 세미나, 기술 사업화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산·학·연 협력사업 발굴 및 수행' 등 지적권과 관련한 서비스를 윈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충남중기종합지원센터는 자체 예산으로 국내 특허출원하는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50만원의 출원보조금, 충남신기술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는 업체당 1백만원을 지원해 왔다.

장귀남 본부장은 '기업 가치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지정받아 현장 실사를 모두 마친 상태'라며 '이번 센터 지정으로 명실공히 중소·벤처 기업의 종합 상담 체계를 모두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 로고에 '성형바람'



최근 로고를 통해 '학교 알리기'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국대학교와 숭실대학교가 새로운 로고를 선보였다.

'이름값'에 안주하던 대학들이 이미지 통합 작업을 통해 적극적인 학교 알리기에 나섰다. 건국대학교는 지난 5월 3일, 50여년 동안 써오던 학교 휘장을 현대적 감각과 학문적 권위를 나타내는 새로운 휘장으로 바꾸고, 대외 홍보와 수익사업 등에 쓰일 영문 로고를 발표했다.

서울대는 '국립 서울 대학교'의 자음을 딴 'KSU'를 결합한 학교 마크 등을 10월 개교기념일에 맞춰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꿀 계획. 성균관대도 지난 5월 20일 대학 이미지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고 '학교 알리기' 경쟁에 뛰어 들었다. 이에 앞서 2002년에 중앙대가, 지난해에는 한국외대와 숭실대 등이 이미 통합 작업을 마쳤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학생이 제 발로 찾아오는 시대가 지났다는 대학 쪽의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김종순 건국대 기획처장은 '대학 구조조정과 학생 유치 경쟁이 맞물리면서 대학이 더는 상아탑으로만 남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 브랜드를 상표화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에 등록된 국내 대학 상표 등록 건수는 지난해 1백 26건으로 2000년 66건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었다. 대학 이름을 딴 상표나 간판에 대한 소송 등도 잇따르고 있다. 다른 대학들보다 앞서 '98년 학교 명칭과 마크를 상표 등록한 연세대는 2000년 학교 이름을 사용한 약국과 병원, 학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연세' 명칭을 빼어냈다. '연세' 이름은 동문들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이 학교 재단법인 관계자는 밝혔다.

이화여대도 지난해 '이화'라는 이름을 쓴 어학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경희대는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방병원 등에 널리 쓰이는 학교 이름에 대한 사용지침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발명교육 청소년 사이트 '발명틴틴' 퀴즈 이벤트

특허청(청장 김종갑)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이구택)가 운영하고 있는 발명 특허 무료교육 사이트인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www.ipacademy.net)'의 청소년 사이트 '발명틴틴'이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이트에 게시되는 퀴즈에 응모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월 초 3월에 추첨하여 예쁜 배낭을 보내주는 이번 이벤트는 12월까지 진행되고, 매주 퀴즈가 업데이트 되므로 연속적인 응모가 가능하다. 또한 응모 횟수에 따라 당첨확률이 높아져



청소년 및 발명교사를 위해 특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발명교육 사이트 '발명틴틴'.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듯.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는 교육 프로그램을 성인용과 청소년 및 발명교사용으로 나누는데, 청소년 및 발명교사를 위한 특화된 교육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는 '발명틴틴'은 청소년을 위한 창의력과 아이디어 창출 교육, 발명교사를 위한 발명반 운영 지침, 학부모를 위한 자녀 발명지도 교육 가이드 등 일반 발명교육에서 찾을 수 없는 사례를 중심으로 특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심판, '2006년 말까지 6개월 이내' 처리

특허청 특허심판원(원장 송주현)은 현재 12개월 소요되는 특허심판 처리기간을 오는 2006년 12월 말까지 6개월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특허분쟁의 조기 해결을 통한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과 선진형 특허행정 체제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특허기술의 확보 및 활용을 둘러싼 권리분쟁 정도를 알 수 있는 심판청구 건수를 보면, 지난 5년간 연평균 22.5% 증가하였고, 특히 작년에는 전년 대비 특허·실용신안 분야 21.5%(5천5백90건), 상표·디자인 분야는 15.5%(5천2백44건) 증가하였으며, 특허심판 청구 건수의 증가에 따라 심판 처리기간도 2000년 10개월에서 2003년 14개월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허심판원은 이와 같은 특허심판 처리기간의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상표·디자인 분야 심판부와 특허·실용신안 분야 심판부의 구성비를 기존 7:6에서 5:8로 조정하였으며, 심판관의 구성비도 13:15에서 12:16으로 변경하여 특허·실용신안 분야 심판부를 대폭강화 하였다. 한편, 특허심판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하여 일반법원의 특허 침해소송과 관련된 심판사건으로서 심리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우선 심판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우선심판제도를 개선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심결이 취소된 심판사건으로서 심결 취소 이후에 특허심판원에 새로운 주장 사실 및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당사자가 사건내용을 잘 알고 있으므로 심결문을 간소하게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심판사건에 대한 심리종결 예정시기의 통지를 의무화하고 통지 후에 의견서 등 추가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심리종결 예정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심판관의 개인별 심판처리 목표의 조정과 심판보조 인력 보강 등을 통하여 심판업무의 내부 혁신역량을 강화한 결과, 특허·실용신안의 심판처리기간을 2003년 14개월에서 2004년에는 12개월 이내로 단축하였다.

아울러 특허청은 특허심판 처리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하여 금년 들어 심판관 8명을 증원함으로써 상표·디자인 분야와 특허·실용신안 분야의 심판관 구성비는 12:24가 되었고, 내년 시행될 직제에 심판관 8명 추가 증원 및 심판 보조인력의 심판관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찾아가는 심판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설명회·구술심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와 심판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심판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심판관의 직무교육 강화 및 장기근속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2006년 12월 말까지는 특허·실용신안 및 상표·디자인 등 모든 분야의 심판이 6개월 이내에 처리 되도록 하여 세계 최고의 특허심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특허고객콜센터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획득

특허청 특허고객콜센터가 국가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최초로 정부공인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관인증'을 획득하였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특허고객콜센터가 지난 5월 11일 산업자원부 산하 국가품질인증 주관기관인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국가행정기관 콜센터로서는 최초로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비스품질우수기관 인증제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기관(한국표준협회)이 인증신청기업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전반의 수준을 현장평가·고객평가·암행평가 등의 3면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이를 정부가 공인하는 인증제도이다. 특

허고객콜센터는 7개 항목, 24개 세부과제의 현장평가와 평가위원들의 암행평가, 콜센터 이용고객의 설문평가로 이루어지는 고객평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국가행정기관 콜센터로서는 최초로 이번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산업재산권 전 분야에 대한 금급증을 단 한통의 전화(1544-8080)로 윈스톱(One-stop)으로 해결해 주고 있는 특허고객콜센터는 지난 2002년 3월에 개설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이 위탁 운영 중이며, 매년 이용고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설 초기인 2002년에는 연간 176,168건(월 평균 19,574건)의 전화상담이 이루어졌으나, 2004년에는 연간 455,435건(월 평균 37,953건)의 전화상담이 이루어져 2002년 대비 159%가 증가되었다.